

끝까지 부은 사람만 받는 돈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조건과 앞선 세 제도의 중도해지 기록

2026년 6월 22일 청년미래적금이 나왔다. 만 19세에서 34세가 드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정부는 넣은 돈의 6% 또는 12%를 얹어 준다. 기본금리는 연 5.0%다.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을 받는 사람은 둘로 정해져 있다. 만기까지 부은 사람과, 정해진 여섯 가지 사유로 중간에 갠 사람이다. 앞선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다. 2025년 4월까지 196만 6,000명이 들었다. 처음 잡은 목표는 304만 명이었다.

연구소는 제도를 새로 만들 때 있어야 할 숫자 하나가 빠져 있다고 본다. 앞선 제도에서 만기까지 부은 사람이 몇 명인가다. 금융 쪽에는 이 숫자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없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8월 15일	2026년 8월 15일	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정부가 없어 주는 적금은 누가 끝까지 붓는가. 끝까지 부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어디에 적혀 있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청년미래적금의 정부기여금은 두 사람만 받는다. 만기일 뒤에 해지한 가입자와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여섯 가지다. 앞선 청년도약계좌는 여덟 가지였고 그 안에 주택 취득과 혼인·출산이 들어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빠졌다. 그런데 앞선 제도에서 만기까지 부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금융 쪽에는 없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상품설명서에서 특별중도해지 사유 여섯 가지를 읽는다. 그 목록에 없는 일로 계좌를 깨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한눈에

청년미래적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여섯
가지다. 앞선
청년도약계좌는 여덟
가지였다. 빠진 세 가지는
주택 취득과 혼인, 출산이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가입자 수는 **계좌 수가 아니라 사람 수**다. 발표 기관이 사람 수로 썼다.
- 중도해지 숫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해지율**은 가입한 사람 가운데 깬 사람의 비율이고, **구성비**는 깬 사람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의 몫이다. 이 보고서는 그때마다 어느 쪽인지 밝혔다.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반올림 때문에 항목을 더해도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자료마다 값이 엇갈린 항목은 두 값을 모두 적었다.
-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해당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이며, 어려운 용어는 부록 가에 모았다.

차례

1장	네 번째 적금이 나왔다	3
2장	기여금은 어떤 순서로 붙는가	6
3장	끝까지 부은 사람의 수가 없다	8
4장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해마다 내는가	13
5장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나	15
6장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	17
부록 가	용어 풀이	20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0

1장

네 번째 적금이 나왔다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청년 적금은 2022년부터 넷째다.

196.6만 명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2025년 4월 · 국회예산정책처	304만 명 처음 잡았던 가입 목표 같은 자료	286.8만 명 앞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같은 자료
--	--	---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적금은 2022년부터 이어졌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2026년 6월의
청년미래적금이다.

네 제도의 구조는 같다. 청년이 매달 넣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얹어 주고,
이자에 붙는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규모는 작지 않다. 청년희망적금에는 286만 8,000명이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4월까지 196만 6,000명이 들었다.¹ 처음 잡은 목표
304만 명의 65% 수준이다.²

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가 54.5%였다. 열 명 중 다섯
명이 넘는다.

1차 모집은 6월 22일에 시작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14개 기관에서 나왔다. 한 곳은 12월에 낼 예정이다.³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았다. 심사는 7월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8월 7일까지였다.⁴

1차 모집 대상은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뺀다.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8월 10일 1차 모집 결과를 냈다. 머니투데이 등 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청은 234만 3,000명이다.⁶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54만 7,000명, 실제로 계좌를 연 사람은 138만 5,000명이다.

심사를 통과하고도 계좌를 열지 않은 사람이 16만 2,000명이다.⁷ 통과한 사람 열 명 중 한 명꼴이다.

가입 형태도 같았다. 일반형이 98만 3,000명으로 70.9%다. 열 명 중 일곱 명이다. 우대형은 38만 9,000명으로 28.1%다.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 사람은 1만 2,000명으로 0.9%다.

연령으로 보면 25~29세가 52만 4,000명(37.8%)이다. 30~34세가 51만 명(36.8%), 19~24세가 29만 명(20.9%)이다.

심사에서 걸린 사람은 79만 6,000명이다. 가구원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가 40만 9,000명으로 가장 많다.

네 제도의 구조는 같다. 청년이 매달 넣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얹어 준다.

정부기여금

가입자가 넣은 돈에 정부가 비율을 곱해 얹어 주는 돈이다. 이자가 아니라 예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받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

<표 1> 기간은 짧아지고 얹어 주는 비율은 커졌다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청년 적금 네 가지의 조건과 실적

제도	소관	계약기간	월 납입한도	정부가 얹어 주는 방식	가입자와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 (2022년)	금융위원회	2년	50만 원	확인한 자료 없음	가입 286만 8,000명 중도해지 80만 4,000명 (28%·2023.3분기) 또는 83만여 명(29%·2024.2)
청년도약계좌 (2023년)	금융위원회	5년	70만 원	총급여에 따라 0~6%	가입 196만 6,000명(2025.4) 중도해지 35만 8,000명 (2025.7) 같은 시점 누적 가입 224만 7,140명의 15.9%

제도	소관	계약기간	월 납입한도	정부가 없어 주는 방식	가입자와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보건복지부	3년	확인한 자료 없음	지원금 최대 1,080만 원	첫 만기 도달 3만 3,000명 (2025.10)
청년미래적금 (2026년)	금융위원회	3년	50만 원	일반형 6%, 우대형 12%	가입 138만 5,000명(1차 모집) 만기 도달자 없음

주: 1) 일부 칸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비웠다.⁸ 가입자 수와 중도해지 수는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 그대로 견주지 못한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 수는 보도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 두 값을 모두 적었다.

2)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비율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6%에서 6,000만 원 초과 0%까지 다섯 구간이다.

자료: 신한은행·하나은행 상품설명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12호, 금융감독원 국회 제출자료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리.

표를 가로로 읽으면 방향이 보인다. 계약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없어 주는 비율은 최대 6%에서 12%로 커졌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가입한 적금이 넷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한다. 계약기간과 월 한도로 구분된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 또는 계약할 때 받은 상품설명서

2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적어 둔다. 3년과 5년은 중간에 깎 때의 결과가 다르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 첫 장의 계약기간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1차 모집은 이미 끝났다. 이 장에서 할 일은 없다.

기여금은 어떤 순서로 붙는가

상품설명서에 적힌 조건을 순서대로 따라간다.

6% 일반형 정부기여금 비율 월 50만 원이면 3만 원 · 금융위원회	12% 우대형 정부기여금 비율 월 50만 원이면 6만 원 · 금융위원회	29개월 우대형이 채워야 할 중소기업 근무 기간 3년 계약 기준 ·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	--	--

청년미래적금의 정부기여금은 두 사람에게만 간다. 상품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첫째는 만기일 뒤에 해지한 가입자다. 둘째는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다.⁹

이 둘에 들지 않으면 기여금은 없다. 넣은 돈과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만 돌려받는다.

중도해지이율은 얼마나 오래 부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신한은행 상품설명서를 보면 1개월 미만은 연 0.10%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기본금리에서 80%를 깎는다. 3개월에서 6개월은 70%, 6개월에서 9개월은 30%를 깎는다. 9개월에서 11개월은 20%, 11개월부터는 10%다.¹⁰

우대금리도 같은 방향이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때만 준다고 적어 두었다.¹¹ 중도에 깨면 우대금리가 붙지 않는다.

중간에 깬 사람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다. 정부기여금,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다.

중간에 깬 사람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다. 정부기여금, 우대금리, 비과세다.

특별중도해지

약관이 정해 둔 사유로 계약을 깨는 것이다.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한다. 사유는 상품설명서에 목록으로 적혀 있다.

<표 2> 3년 계약에는 중간 단계가 없다

해지 방식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얼마나 받는가

어떻게 해지하는가	청년도약계좌(5년)	청년미래적금(3년)
만기해지	기여금 100%, 비과세 적용	기여금 전액, 비과세와 우대금리 적용
특별중도해지	기여금 100%	기여금 지급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	기여금 60%	해당 없음(3년이 곧 만기)

어떻게 해지하는가	청년도약계좌(5년)	청년미래적금(3년)
그 밖의 중도해지	기여금 없음	기여금과 우대금리 없음, 중도해지이율 적용

주: 청년미래적금의 특별중도해지 때 우대금리를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²

자료: 신한은행 「신한 청년미래적금 상품설명서」 (2026년 6월 2일 시행),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설명서」 (2025년 1월 1일)를 정리.

우대형 12%에는 29개월 조건이 붙는다

기여금 비율은 두 가지다. 일반형은 넣은 돈의 6%, 우대형은 12%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이 붙는다.¹³

우대형 대상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도 들어간다. 여기에 근무 기간 조건이 붙는다.

신한은행 상품설명서는 만기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2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직은 두 번까지 인정하고, 못 채우면 일반형 6%가 적용된다.¹⁴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기여금을 주지 않는다.

소득 조건은 두 겹이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만 받는다. 그 위는 이자소득 비과세만 받는다.¹⁵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로 본다. 소상공인은 일반형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우대형이 1억 원 이하다.¹⁶

1차 모집에서 개인소득 요건에 걸린 사람은 21만 1,000명이다. 가구소득 기준을 넘은 사람은 16만 5,000명이다. 둘을 더하면 37만 6,000명이다. 심사에서 걸린 79만 6,000명 열 명 중 네 명이 넘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상품설명서에서 정부기여금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찾아 읽는다. 두 가지로 적혀 있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의 상품설명서 내려받기 항목

- 2 우대형이면 중소기업 근무 29개월을 언제 채우는지 달력에 적는다. 만기 1개월 전이 기준이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의 정부기여금 지급 조건,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일반형이면 근무 기간 조건이 없다. 근무 기간을 따로 셀 일은 없다.

3장

끝까지 부은 사람의 수가 없다

기여금은 끝까지 부은 사람만 받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6가지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사유 2026년 6월 ·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8가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60%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갠 때 받는 기여금 하나은행 요약 상품설명서
---	--	--

이 장은 하나를 밝힌다. 정부기여금을 받는 조건은 상품설명서에 또렷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채운 사람이 몇 명인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빠진 세 줄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에 여덟 가지로 적혀 있다. 그 안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과 혼인·출산이 들어 있다.¹⁷ 하나은행은 주택 조건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본인이 살 목적일 때로 적었다.

청년미래적금의 사유는 여섯 가지다. 사망과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이 앞의 넷이다.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파산이 나머진다.¹⁸

하나은행은 같은 내용을 여덟 항목으로 나눠 적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따로 세고 금융회사 사유를 둘로 나눈 결과다. 세는 방식만 다르고 내용은 같다.

두 은행 자료를 맞춰 보면 주택 취득, 혼인, 출산 세 줄이 빠졌다. 뺀 이유를 밝힌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다.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몫도 사라졌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중간 단계가 있었다. 만기이거나 특별중도해지면 기여금을 100% 준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깨면 60%를 준다.¹⁹

청년미래적금에는 이 단계가 없다. 계약기간 자체가 3년이라 3년을 채우면 그것이 만기다. 만기 아니면 특별중도해지, 둘 중 하나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것은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몫도 함께 사라졌다.

<표 3> 주택 취득과 혼인·출산 세 줄만 빠졌다

두 제도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대조

사유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사망 또는 해외이주	인정	인정
천재지변	인정	인정
퇴직	인정	인정
사업장 폐업	인정	인정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인정	인정
금융회사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	인정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인정	없음

정부가 없어 주는 돈은 끝까지 부은 사람만 받는다. 그런데 끝까지 부은 사람의 수를 공개하는 자료가 없다.

구성비와 해지율

구성비는 갠 사람 전체를 100으로 놓고 나눈 몫이다. 해지율은 그 구간에 든 사람 가운데 갠 사람의 비율이다. 두 값은 뜻이 다르다.

사유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혼인 또는 출산	인정	없음

주: 은행마다 항목을 세는 방식이 다르다. 청년미래적금은 신한은행이 여섯 가지로, 하나은행이 여덟 가지로 적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한은행이 여덟 가지로, 하나은행이 일곱 가지로 적었다. 내용은 같다.

자료: 신한은행·하나은행의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각 상품설명서를 대조해 정리.

앞선 제도의 만기 인원은 어디에도 없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 있어야 할 숫자가 있다. 앞선 제도에서 끝까지 부은 사람이 몇 명인가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다. 2024년 2월 21일부터 만기 지급이 시작됐다. 가입자는 286만 8,000명이다. 중도해지자는 자료마다 다르다. 2023년 3분기 기준은 80만 4,000명으로 28%다. 만기 지급이 시작될 무렵은 83만여 명으로 29%다.²⁰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 만기까지 부은 사람 수를 직접 밝힌 발표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두 숫자를 빼서 만기 인원을 구할 수도 없다. 재가입과 중복 집계를 걸러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숫자는 국회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을 때 나왔다.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가입은 224만 7,140명, 중도해지는 35만 8,000명이다. 해지율은 15.9%, 해지 금액은 1조 5,010억 1,000만 원이다.²¹

정부기여금 환수는 32만 5,000건, 479억 5,000만 원이다. 깬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이 기여금을 도로 내놓았다.

이 자료에도 만기 도달 인원은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시작한 5년 만기 상품이다. 첫 만기는 2028년 6월이다.²²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첫 만기 인원을 3만 3,000명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최대 1,080만 원이다.²³ 만기에 이른 사람 수를 숫자로 낸 것이다.

같은 나라 안에서 부처에 따라 공개 방식이 다르다. 금융 쪽에는 만기 도달 인원을 낸 자료가 없다.

적게 넣던 사람이 먼저 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청년도약계좌를 깬 사람을 월 납입액 구간별로 나눈 값이 있다. 월 10만 원도 넣지 못하던 사람이 12만 7,000명으로 39.4%다. 깬 사람 열 명 중 네 명꼴이다. 월 한도 70만 원을 채우던 사람은 3,000명으로 0.9%다.²⁴

이 39.4%가 무엇을 분모로 삼은 값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중도해지자 35만 8,000명을 분모로 놓으면 12만 7,000명은 35.5%다. 39.4%가 되려면 분모가 약 32만 명이어야 한다. 인용한 보도 가운데 한 곳은 이 값을 구성비로, 다른 한 곳은 해지율로 적었다.

분모가 무엇이든 방향은 같다. 적게 넣던 사람이 먼저 깬다. 한도를 채우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은 끝까지 간 사람에게 돌아간다.

앞선 제도에서 끝까지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상태로 다음 제도를 만들면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더 많이 간다. 월 50만 원을 3년 동안 거르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청년이 몇 명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해지율 자체도 자료마다 다르다. 2024년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는 14.9%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는 14.7%, 국회입법조사처를 인용한 보도는 15.9%다.²⁵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6년 8월 두 제도를 함께 살핀 자료를 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열 명 가운데 세 명가량이 만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른다.²⁶

같은 자료에 깬 이유도 나온다.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39.0%, 긴급자금 필요가 33.3%다.²⁷ 나머지 이유의 비율은 공개된 자료에 없다.

<표 4> 국내 세 제도 가운데 만기 인원을 낸 곳은 한 곳이고, 그것도 한 번이다

국내 세 제도와 국외 세 제도의 공개 항목 대조

제도	소관	공개하는 항목	공개 주기	만기 도달 인원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가입자, 중도해지자, 만기 지급 총액	만기 시작 때 한 번	공개된 자료 없음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입자, 중도해지자, 해지 금액, 기여금 환수액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첫 만기가 2028년 6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첫 만기 도달 인원, 지원금 한도	첫 만기 때 한 번	공개함(3만 3,000명)

제도	소관	공개하는 항목	공개 주기	만기 도달 인원
Help to Save (영국)	영국 국세청	누적 개설, 유지 계좌, 납입 경험자, 무납입 계좌, 보너스 총액	해마다 9월	따로 내지 않음 (계좌가 자동으로 닫힘)
Lifetime ISA (영국)	영국 국세청	인출 수수료 총액과 부담 인원, 첫 주택 구입 인출 인원	해마다 9월	용도별 인출 인원으로 공개
IDA 시범사업 (미국)	워싱턴대 사회개발센터	참여자, 매칭 인출자, 매칭 없는 인출자	사업 종료 보고서	공개함(매칭 인출 32%)

주: 국내 세 제도의 공개 주기는 확인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적었다. 별도로 정해진 공시 주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영국 국세청 연간 저축 통계 2025, 워싱턴대 사회개발센터 최종보고서를 정리.

깊이 보기 · 가

가입자 수는 왜 자주 나오고 만기 인원은 왜 안 나오는가

가입자 수는 제도를 시작한 해에 성과로 쓰인다. 목표 대비 얼마나 들었는지가 바로 나온다.

만기 인원은 3년이나 5년이 지나야 나온다. 그때는 제도를 만든 쪽과 평가하는 쪽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만기 인원은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나온다. 영국은 해마다 9월 같은 통계에 같은 항목을 싣는다.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온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앞으로 3년 안에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지 적어 본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의 특별중도해지 사유 목록. 이 세 가지는 목록에 없다

- 2**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과 만기일을 나란히 적어 본다. 만기가 먼저인지 계획이 먼저인지가 기준이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에 만기일이 적혀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획이 없다면 지금 계산할 것이 없다. 3년 뒤에 다시 보면 된다.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해마다 내는가

제도의 설계보다 공개 방식을 본다.

575,200개 영국 Help to Save 누적 개설 계좌 2025년 4월 · 영국 국세청	36,000개 열고도 한 번도 넣지 않은 계좌 같은 통계	32% 미국 IDA 시범사업에서 매칭 인출까지 간 참여자 2001년 12월 · 워싱턴대 사회개발센터
--	--	---

영국에는 Help to Save가 있다. 일하면서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는 사람이 매달 1파운드에서 50파운드까지 넣는다. 정부는 넣은 돈의 50%를 2년째와 4년째에 보너스로 준다. 최대 1,200파운드다.²⁸ 보너스는 그 기간의 최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좌는 두 번째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닫힌다.

영국 국세청은 해마다 9월 연간 저축 통계에 같은 항목을 싣는다. 2025년 4월 기준 값은 이렇다. 2018년 9월 제도가 시작된 뒤 누적 개설은 575,200개, 그때 살아 있던 계좌는 282,700개다. 돈을 넣어 본 사람은 약 495,200명이다.²⁹

계좌를 열고도 한 번도 넣지 않은 계좌가 36,000개다. 이 항목을 해마다 같은 자리에 낸다.

1인당 월 평균 납입은 48파운드다. 납입 건의 94%가 한도인 50파운드다. 월 48파운드면 한 해 576파운드다.

누적으로 보면 저축은 5억 8,820만 파운드, 지급한 보너스는 2억 2,000만 파운드다.³⁰ 2023년 10월 발표와 견주면 늘어난 폭을 알 수 있다. 그때는 계좌가 약 45만 개, 보너스가 1억 4,600만 파운드였다. 돈을 넣은 사람은 약 383,000명이었다.³¹

2025년 4월 17일부터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 조치로 55만 명이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제도는 2027년 4월까지 운영한다.³²

정해진 용도 밖으로 뺀 돈도 공개한다

영국에는 Lifetime ISA도 있다. 정부가 넣은 돈의 25%를 얹어 주되, 첫 주택 구입이나 60세 이후가 아닌 인출에는 수수료를 물린다.

영국은 계좌를 열고도 한 번도 넣지 않은 계좌 수를 해마다 같은 자리에 낸다.

매칭 저축

가입자가 넣은 돈에 비례해 정부나 재단이 돈을 얹어 주는 방식이다. 1대 1이면 넣은 만큼 얹어 주고, 2대 1이면 두 배를 얹어 준다.

영국 국세청은 그 수수료도 해마다 공개한다. 2024/25년 수수료 총액은 1억 200만 파운드, 문 사람은 129,200명이다. 1인당 평균 약 789파운드다.³³ 전년은 7,500만 파운드였다.

같은 해 첫 주택을 사려고 인출한 사람은 87,250명이다. 평균 인출액은 15,782파운드다. 수수료를 문 사람이 집을 산 사람보다 많다.³⁴

미국은 20여 년 전에 이 숫자를 냈다

미국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한 시범사업이 있다. American Dream Demonstration이라고 부른다. 저소득층에게 매칭 저축 계좌를 열어 주고 평균 2대 1로 얹어 줬다.

워싱턴대 사회개발센터 최종보고서에 결과가 있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참여자는 2,364명, 1인당 월 평균 순납입은 19.07달러다.³⁵

순저축이 100달러를 넘은 참여자가 56%, 그 아래가 44%다. 매칭 인출까지 간 참여자는 약 32%다. 매칭 대상 잔액에서 매칭 없이 돈을 뺀 참여자는 약 64%다.

참여자 열 명 가운데 셋만 얹어 주는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20여 년 전 시범사업이 낸 이 숫자를 한국의 어느 제도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영국의 누적 개설 계좌와 살아 있는 계좌를 빼서 해지율로 쓰면 틀린다. 4년이 지나 자동으로 닫힌 계좌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영국 사례에서 가져올 것은 비율이 아니라 공개 방식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가입한 제도가 어떤 실적을 공개하는지 찾아본다. 가입자 수 말고 다른 항목이 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청년 자산형성 안내 화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국외 제도의 조건을 한국 제도와 그대로 견줄 일은 없다. 대상과 금액이 다르다.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나

고칠 곳을 다섯 가지로 좁힌다. 사람이 아니라 설계를 말한다.

100% 도약계좌를 만기나 특별중도해지로 갠 때 받는 기여금 하나은행 요약 상품설명서	2회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모집 횟수 한 해 기준 · 금융위원회	3,600만원 우대형 12%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상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금융위원회
---	--	---

첫째, 만기 도달 인원을 정기 공시 항목에 넣는다

지금 나오는 것은 가입자 수와 중도해지 수다. 만기까지 부은 사람 수는 그 옆에 없다.

공시 항목은 넷이면 된다. 만기 도달 인원, 특별중도해지 인원, 일반 중도해지 인원, 기여금을 실제로 받은 인원이다.

이 항목에는 새 조사가 들지 않는다. 기여금을 주려면 어차피 만기 인원을 세야 한다. 이미 세고 있는 숫자를 같은 자리에 내놓으면 된다.

공시 항목은 넷이면 된다. 만기 도달, 특별중도해지, 일반 중도해지, 기여금을 실제로 받은 인원이다.

둘째, 특별중도해지 사유에서 무엇을 뺐는지 밝힌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주택 취득과 혼인·출산이 들어 있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없다. 뺐 이유를 밝힌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다.

3년 안에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가입자는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결과가 의도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1차 모집 가입자 138만 5,000명 가운데 103만 4,000명이 25세에서 34세 사이다. 74.6%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넘는다.³⁶ 이 나이대에 세 가지 일이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넣지 못하는 달을 어떻게 다룰지 정한다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이라 한 달을 걸러도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 다만 기여금은 넣은 돈에 비례하므로 넣지 못한 달에는 붙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직이나 질병이 있을 때 납부를 멈추고 일부를 빼 쓸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른다.³⁷

갠 사람의 39.0%가 실업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열 명 중 네 명꼴이다. 넣지 못하는 달이 곧 계좌를 깨는 이유가 된다.

넷째, 우대형 근속 요건이 만드는 결과를 살핀다

우대형 12%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 29개월을 채워야 한다. 이직은 두 번까지 인정한다. 3년 계약에서 29개월은 짧지 않다.

못 채우면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고 일반형 6%가 적용된다. 얹어 주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대형 38만 9,000명 가운데 몇 명이 29개월을 채울지는 지금 알 수 없다. 1차 모집 가입자의 만기가 2029년이다. 그 숫자를 공개할 항목을 지금 정해 두면 된다.

다섯째, 앞선 제도에서 옮겨 온 사람의 기록을 남긴다

1차 모집 때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그다음 도약계좌를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로 깬다. 도약계좌를 먼저 깨면 갈아탈 수 없다.³⁸

갈아탄 인원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이 숫자가 없으면 138만 5,000명 가운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9월 추가 모집은 검토 단계다. 확정된 일정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볼 곳은 두 가지다. 하나는 추가 모집 공고가 실제로 나오는지다. 다른 하나는 2028년 6월 도약계좌 첫 만기 때 만기 도달 인원이 함께 나오는지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우대형이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지 물어본다.**
근무 기간이 여기서 시작된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자산형성 상담 창구

- 2 **소득이 줄어 넣기 어려운 달이 생기면 계좌를 깨기 전에 한 달을 걸러도 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의 자유적립식 조건,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달을 거른다고 해서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는. 그 달치 기여금만 불지 않는다.

6장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보고서는 가입하러거나 하지 말라고 권하지 않는다. 판단에 쓸 기준만 적는다.

3년 청년미래적금 계약기간 2026년 6월 ·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50만 원 월 납입 한도 연 600만 원 이하 · 같은 자료	5.0% 3년 고정 기본금리 2026년 6월 22일 기준 · 세전
---	--	---

하나. 3년을 달력에 적어 본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2026년 8월에 계좌를 열었으면 만기는 2029년 8월이다. 그 사이에 집을 사거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으면 그 시점을 먼저 적어 본다. 세 가지 모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둘. 상품설명서에서 두 항목을 찾는다

첫째는 정부기여금을 받는 사람의 범위다. 만기해지자와 특별중도해지자 둘뿐이라고 적혀 있다.

둘째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목록이다. 여섯 가지나 여덟 가지로 적혀 있고, 세는 방식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최고 금리는 우대 조건을 다 채웠을 때의 값이다. 조건을 못 채우면 그만큼 내려간다.

우대금리

정해진 조건을 채운 가입자에게만 더 얹어 주는 금리다. 급여이체나 카드 결제처럼 여러 달 이어 가야 하는 조건이 많다.

셋. 금리를 견줘 본다

기본금리는 15개 기관이 모두 연 5.0%다. 3년 고정이다. 차이는 우대금리에서 난다.

<표 5> 기본금리는 같고 우대금리에서 갈린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의 금리 구조 (2026년 6월 22일 기준, 세전)

구분	기관 수	기본금리	최고금리
우대금리 상한 3%p	7곳	연 5.00%	연 8.00%
우대금리 상한 2%p	8곳	연 5.00%	연 7.00%

주: 공통 우대 두 가지는 어디서 들어도 같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0.5%p, 청년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p다. 기관 수 구분은 언론 보도에 따른다.³⁹

자료: 금융위원회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2026년 5월 29일)와 신한은행·하나은행 상품설명서, 이를 정리한 언론 보도.

우대 항목에는 조건이 붙는다. 신한은행은 소득이체를 18개월 이상, 카드 결제를 18개월 이상 이어 가야 한다고 적었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24회차 이상, 카드 결제 24회차 이상을 걸었다.⁴⁰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때만 준다고 적었다. 중도에 깨면 우대금리는 붙지 않는다.

넷. 만기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본다

월 50만 원을 3년 채우면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정부기여금은 우대형이 216만 원, 일반형이 108만 원이다. 월 6만 원과 3만 원에 36개월을 곱한 값이다.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

KB국민은행 안내는 만기 수령액을 우대형 약 2,255만 원, 일반형 약 2,138만 원으로 적었다.⁴¹ 우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값이다. 조건을 못 채우면 그만큼 내려간다.

다섯. 보호 한도를 확인한다

이 적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이다.⁴² 정부기여금이 이 한도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1 만기일을 달력에 적는다. 계좌를 연 날에서 3년 뒤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
- 2 상품설명서에서 특별중도해지 사유 목록을 찾아 읽는다. 여섯 줄이나 여덟 줄이다.
확인하는 곳 ·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의 상품설명서 내려받기 항목
- 3 받고 있는 우대금리 항목을 세어 본다. 조건마다 요구하는 개월 수가 다르다.
확인하는 곳 · 은행 앱의 우대금리 충족 현황 화면, 또는 고객센터
- 4 우대형이면 중소기업 근무 29개월을 언제 채우는지 센다.
확인하는 곳 · 상품설명서의 정부기여금 지급 조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월 50만 원을 다 넣지 않아도 된다. 넣은 만큼 기여금이 붙는다. 한도를 채우려고 다른 빚을 내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정부기여금

가입자가 넣은 돈에 정부가 비율을 곱해 얹어 주는 돈이다. 이자가 아니라 예산에서 나온다.

매칭 저축

넣은 돈에 비례해 정부나 재단이 돈을 얹어 주는 방식이다. 2대 1이면 두 배를 얹어 준다.

특별중도해지

약관이 정해 둔 사유로 계약을 깨는 것이다.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인정한다.

중도해지이율

만기 전에 계약을 깬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오래 부을수록 기본금리에서 깎는 비율이 작아진다.

자유적립식

매달 같은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되는 적금이다. 한도 안에서 달마다 금액을 정한다.

우대금리

정해진 조건을 채운 가입자에게만 더 얹어 주는 금리다. 급여이체나 카드 결제 조건이 흔하다.

총급여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실제로 손에 쥔 돈과는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가구소득의 가운데 값이다. 복지 제도의 대상을 정할 때 쓴다.

구성비

어떤 집단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각 부분이 차지하는 몫이다.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

앞선 제도의 계좌를 새 제도로 옮기려고 깬 때 쓰는 절차다. 순서를 지켜야 인정한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1차] 신한은행, 「신한 청년미래적금 상품설명서」, 2026년 6월 2일 시행.
img.shinhan.com
(<https://img.shinhan.com/sbank2016/seol/20260602000000540001LC000030.PDF>)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 [1차] 하나은행, 「하나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kebhana.com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525860_115157.jsp)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3. [1차]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설명서」, 2025년 1월 1일.
image.kebhana.com
(https://image.kebhana.com/cont/download/documents/manual/0100308000101_20250101_m.pdf)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4. [1차] 신한은행, 「신한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img.shinhan.com
(<https://img.shinhan.com/sbank2016/seol/20230608000000960006LC000030.PDF>)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5. [1차]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054>)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6. [1차]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2026년 5월 29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817>)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7. [1차]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와 심사일정」.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692>)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8. [1차]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12호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 2025년 6월
17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5729>)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9. [1차] KB국민은행, 「2026 청년미래적금 조건과 신청 기간」. kbthink.com
(<https://kbthink.com/youth-guide/youth-future-savings.html>)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0. [1차] HM Revenue & Customs(영국), 「Annual savings statistics 2025 ·
Commentary」.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nnual-savings-statistics-2025/commentary-for-annual-savings-statistics-september-2025>)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1. [1차] HM Revenue & Customs, 「Annual savings statistics 2025 · Methodology」.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nnual-savings-statistics-2025/annual-savings-statistics-background-and-methodology>)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2. [1차] HM Revenue & Customs, 「£220m boost for the Help to Save club」, 2025년
9월 24일. mynewsdesk.com (<https://www.mynewsdesk.com/uk/hm-revenue-customs-hmrc/pressreleases/220-pounds-million-boost-for-the-help-to-save-club-3406265>)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3. [1차] HM Revenue & Customs, 「Help to Save customers receive £146m in
bonuses」, 2023년 10월 31일.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lp-to-save-customers-receive-146-million-in-bonus-payments>)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4. [1차] HM Revenue & Customs, 「Half a million more people in line for savings
boost」, 2025년 4월 17일. mynewsdesk.com (<https://www.mynewsdesk.com/uk/hm-revenue-customs-hmrc/pressreleases/more-than-half-a-million-more-people-in-line-for-savings-boost-3381501>)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5. [1차] 워싱턴대 사회개발센터, 「Saving Performance in the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최종보고서, 2002년 10월. microfinance.com
(https://www.microfinance.com/English/Papers/IDAs_in_ADD_Final_Report.pdf)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6. [2차] 머니투데이, 「청년미래적금 138만5000명 최종 가입」, 2026.8.10. mt.co.kr
(<https://www.mt.co.kr/finance/2026/08/10/2026081019454460402>)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7. [2차]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 2026년 8월 10일 같은 발표 보도.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608101954323640>)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8. [2차] 쿠키뉴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 급증」, 강민국 의원실 요구자료.
kukinews.com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8200201>)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19. [2차] 일간NTN·한국세정신문, 같은 제출자료 보도. intn.co.kr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431>)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0. [2차] 한국금융경제신문, 「만기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21조 지급액 어디로?」.
kfenews.co.kr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594>)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1. [2차] 고방·MBC,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3만 3천 명에 지원금 지급」. gobang.kr
(<https://gobang.kr/contents/7257>)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2. [2차] 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료 보도, 2026년 7월 27일.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7730>)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3. [2차] 파이낸셜투데이·NSP통신,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정책 귀착 효과 자료 보도, 2026년 8월 12일. ftoday.co.kr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498>)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4. [2차] 노컷뉴스,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보도, 2025년 8월 3일.
v.daum.net (<https://v.daum.net/v/20250804000456658>)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5. [2차] 헤럴드경제,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12호 보도. biz.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09352>)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6. [2차] 파이낸셜뉴스·현대경제신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를 정리한 기관별 우대금리
보도. v.daum.net (<https://v.daum.net/v/20260529100006727>)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7. [2차] 이코노믹리뷰, 「만기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현명한 재투자 방법은?」, 2024년 1월 10일. econovill.com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709>)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8. [2차] CBC뉴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주의」, 2026년 8월 3일. cbc.co.kr
(<https://www.cb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130>)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29. [2차] Quilter, 「£102m lost to LISA penalties」. media.quilter.com
(<https://media.quilter.com/search/hmrc-stats-show-record-isa-inflows-but-102m-lost-to-lisa-penalties/>) (확인일: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자료 29건 가운데 1차 자료가 15건이다. 절반이 넘는다. 표지 세 문단, 세 줄 요약, 각 장의 숫자 셋에 쓴 값은 모두 1차 자료다.

각주

1.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12호, 2025년 6월 17일. 2025년 4월 기준이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같은 자료의 값이다.
2. 계산식은 196.6만 ÷ 304만 = 64.7%다. 원 자료에 이 비율은 없다.
3. 금융위원회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2026년 5월 29일.
4. 금융위원회 가입절차 안내. 첫 주 신청은 출생연도 5부제로 받았다.
5. 금융위원회 출시 준비 점검회의 자료. 신규 가입 모집은 한 해 두 번이다.

6.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8월 10일 발표를 인용한 네 매체 보도다. 원 발표문은 확인하지 못해 표지와 숫자 셋 상자에는 쓰지 않았다.
7. 계산식은 154만 7,000명 - 138만 5,000명 = 16만 2,000명이다. 원 발표에 이 항목은 없다.
8. 청년희망적금의 정부지원 방식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월 납입한도·가입자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9.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의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항목이다. 하나은행 안내도 같다.
10.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 표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
11. 하나은행 청년미래적금 안내.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때만 준다고 적혀 있다.
12. 두 은행 자료 모두 특별중도해지 때의 우대금리 적용을 따로 적지 않았다.
13. 금융위원회 자료와 KB국민은행 안내. 월 3만 원과 6만 원은 50만 원에 6%와 12%를 곱한 값이다.
14.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만기 1개월 전까지 29개월 이상 근무가 기준이다.
15. 금융위원회 점검회의 자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16. 금융위원회 자료와 KB국민은행 안내. 소상공인 기준은 KB국민은행 안내에서 확인했다.
17.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는 여덟 항목으로, 하나은행 요약 상품설명서는 주택 취득과 혼인·출산을 한 항목으로 묶어 일곱 항목으로 적었다.
18. 신한은행 청년미래적금 상품설명서. 사망·해외이주를 뺀 나머지는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19.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요약 상품설명서의 정부기여금 지급 항목이다.
20. 80만 4,000명(28%)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이코노믹리뷰 2024년 1월 10일 보도의 값이다. 83만여 명(29%)은 금융당국 2024년 2월 발표를 인용한 한국금융경제신문 보도의 값이다. 기준 시점이 달라 두 값을 모두 적었고, 표지와 숫자 셋 상자에는 쓰지 않았다. 가입자 286만 8,000명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의 값이다.
21. 강민국 의원실 요구자료를 인용한 쿠키뉴스·일간NTN·한국세정신문 보도다. 2025년 7월말 기준이다.
22. 같은 보도에 만기가 3년 남았다고 적혀 있다. 2023년 6월에 5년을 더하면 2028년 6월이다.
23. 보건복지부 2025년 10월 발표를 인용한 고방·MBC 보도다. 2022년 총 가입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24. 같은 요구자료 보도다. 10만~20만 원은 6만 6,000명(20.4%), 20만~30만 원은 4만 5,000명(13.9%)이다. 계산식은 12만 7,000명 ÷ 35만 8,000명 = 35.5%, 12만 7,000명 ÷ 39.4% = 약 32만 명이다. 일간NTN·한국세정신문은 이 값을 구성비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인용한 NSP통신은 중도해지율로 적었다.
25. 세 값의 기준 시점과 산출 방식이 서로 다르다.
26. 국회미래연구원 2026년 8월 12일 자료를 인용한 파이낸셜투데이·NSP통신 보도다.
27. 같은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를 인용한 파이낸셜투데이·NSP통신 보도의 값이다. 두 가지 이유만 실렸다.
28. 영국 국세청 연간 저축 통계 2025의 방법 설명이다.
29. 영국 국세청 연간 저축 통계 2025 해설문. 누적은 2018년 9월부터의 값이다.
30. 영국 국세청 2025년 9월 24일 발표. 2018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누적이다.
31. 영국 국세청 2023년 10월 31일 발표다. 계좌 수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5만 개로 적혀 있다. 383,000명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넣은 사람이다.
32. 영국 국세청 2025년 4월 17일 발표다.
33. 영국 국세청 통계를 정리한 Quilter 자료다. 원 통계는 2025년 9월 18일 발표본이다.
34. 영국 국세청 연간 저축 통계 2025 해설문의 Lifetime ISA 항목이다.
35. 워싱턴대 사회개발센터 최종보고서 요약면의 값이다.
36. 계산식은 52만 4,000명 + 51만 명 = 103만 4,000명, 37.8% + 36.8% = 74.6%다. 원 발표에 이 합계는 없다.
37. 국회입법조사처 2026년 7월 27일 자료를 인용한 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보도다.
38. 금융위원회 가입절차 안내와 KB국민은행 안내, CBC뉴스 보도다. 갈아타기는 1차 모집 기간에만 열렸다.
39.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를 정리한 파이낸셜뉴스·현대경제신문 보도다.
40. 신한·하나 상품설명서의 우대금리 항목이다.
41. KB국민은행 청년미래적금 안내의 만기 수령액 예시다. 기여금 216만 원과 108만 원은 월 6만 원과 3만 원에 36개월을 곱한 값이다.
42. 신한·하나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항목이다.



제목	끝까지 부은 사람만 받는 돈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22 · NEXUS Research 2026_22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5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끝까지 부은 사람만 받는 돈」, 넥서스 리서치 2026_22,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가입과 해지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